

우성에프앤티

# FABRIC TREND DIRECTION

주관 : ECO융합섬유연구원  
진행 : 유니온플래닝

2017. 06

# 1819 F/W OVERVIEW

촉감과 부드러움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즌에 구애 받지 않는 기하학 및 불규칙한 구조의 양면, 스페이스 다이, 켈트 룩의 핵심으로 자리한다. 또한 천연 섬유와 합성한 기능성 소재가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 **지속 가능한 소재** : 재활용 합성 소재와 혼방되어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내구성을 강화한 천연 섬유는 유해한 마감처리와 워시의 필요를 없애, 향균성 및 냄새 제거 특성을 지닌다.
- **하이파일&플러시** : 촉감적인 원단이 계속해서 이번 시즌 상품을 이끈다. 내추럴한 색상의 플러시 하이파일 원단, 텍스처 니트, 스웨트 셔츠 등 다양한 아이템에 제공한다.
- **뉴 노스탤지어** : 70년대 영감을 받은 스페이스 다이 원사가 계속해서 색다른 니트웨어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레트로 무드의 기하학 패턴이 리메이크되어 노스탤직한 스타일을 완성한다.
- **실용적 편안함** : 니트웨어 디자인은 라운지웨어와 애슬레저 영향으로 스포티 세트로 더 편안한 착용감을 추구한다.





# Fabric Focus

1819 F/W

---

## 지속가능한 재활용 소재

재활용 합성 소재와 혼방되어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내구성을 강화한 천연 섬유 기능을 집중하는 등 소재의 수명을 강조하고 있다.

Flocus가 생산하는 비건 섬유 중 하나인 케이폭은 단열, 경량, 발수성이 뛰어나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 가장 지속 가능성이 뛰어나다.

이 섬유는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었고, 최소한의 물을 사용했으며 마이크로폴리스, 캔버스 느낌의 팬츠 소재 및 본디드 소프트 셀 등 새로운 원사 활용을 보여준다.





# Sustainable Issue

**Orange Fiber**의 혁신적인 시도는 쓰레기에 가치를 더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한다. 이탈리아 시칠리섬에서 배출되는 오렌지 쓰레기에서 추출한 펄프에 셀룰로오스 섬유를 방적하고 직조해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의 친환경 섬유로 탄생시켰다. 지난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Salvatore Ferragamo**는 **Orange Fiber**와 협업하여 캡슐 컬렉션으로 셔츠, 드레스, 팬츠, 스카프를 선보였다. 이번 협업으로 명품 브랜드가 친환경을 실천한 고품질 원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Sympatex Technologies**는 미래 세대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한다. 100% 재활용 가능한 Membrane은 방풍 및 방수 처리로 100% 기능성을 유지한다. Laminate는 텐셀 리오셀 섬유로 만들어져, 재활용 및 생 분해성 옵션을 제공한다.





# 친환경 셀룰로오스

Lenzing은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리오셀 생산에 앞장서는 여러 업체 중 하나이다. 텐셀, 쿠프로, 모달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Refibra** 같은 혁신적인 신소재 개발은 텐셀과 재활용된 코튼을 결합해 친환경의 장점을 한층 더 높인다. 탁월한 드레이프감, 부드러운 촉감,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의 셀룰로오스는 남성/여성복 모두 사용되며 애슬레저의 필수 요소인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올 가을, **Lenzing**에서 새로운 브랜드 '**EcoVero**'를 출시한다. 기존 비스코스 섬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물을 덜 오염시키는 공정을 통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EcoVero**는 지속가능한 목재 원료(FSC)를 사용해 최종 제품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특수기술을 사용해 공급망에 투명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Refibra™



Refibra™ X Zara Join Life Collection 2017



EcoVero™



## Supple basic

저지 원단에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되는 베이직 캐주얼 스타일이 담겨 있다. 편안함, 부드러운 촉감, 가벼움에 초점을 맞추고 레저웨어에 럭셔리 감각을 더한다. 촘촘한 골지와 평직 저지 스티치 구조는 심플하고 편안하며, 스페이스 다이 원사를 사용해 스페클과 해치 무늬로 바탕을 흐릿하게 처리한다. 슬러브, 테리직 루프백 저지는 추가의 질감과 입체감을 제공한다.

Thygesen & Birk Fabrics 은 미네랄 원사로 구성된 텐셀과 쿠프로가 섞여 체온 조절 및 냄새 제거 기능을 통해 쾌적한 매끄러운 촉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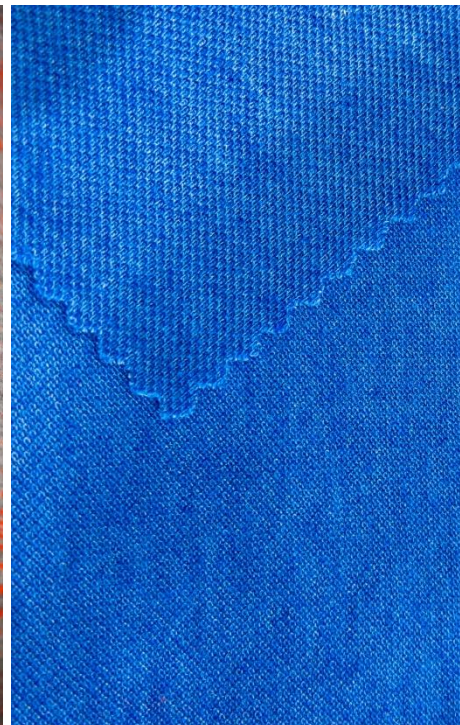


Thygesen & Birk Fabrics



## 애슬레저 컴포트

편안함과 웰빙이 여전히 우선순위로 자리하고, 촉감이 매우 뛰어난 메리노 혼방과 재활용 원사를 새롭게 발전시킨다. 피부 위에 밀착해서 착용하도록 제작된 니트 베이스 레이어는 뛰어난 수분 관리 기능, 쿨링 또는 보온 효과를 제공하고, 자외선 보호, 냄새 조절 및 쾌속 건조 기능이 더해진다..





# 부드러운 촉감

포근한 부드러움과 촉감이 계속해서 스웨트셔츠 및 자켓 소재의 캐주얼 겨울 저지를 이끈다. 스트라이프, 말드, 스페이스 다이, 넵 효과에 이르는 패턴은 새로움을 더해주고, 로프티, 플리스, 브러시드, 밀링 효과는 루프백, 싱글 저지, 양면 구조에 사용된다. 복슬복슬한 원사와 부클레 원사가 브라이트 인공 파스텔로 재미있고 장식적인 느낌을 제공하고, 그레이, 에크루, 파우더 블루, 핑크에 이르는 차분한 색상으로 가벼운 촉감을 강조해 보다 섬세한 느낌을 선사한다.





## 천연 하이브리드 소재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가 접목된 이중 안단으로 하이브리드 소재는 미드 레이어를 통해 진화를 거듭한다. 천연 섬유는 기후 및 수분 조절 기능 덕분에 사용되고, 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화한다. 세련된 룩이 매끄러운 마감, 부드럽고 구조적인 기능성 안감으로 발전되어 나타난다.





## 하이브리드 니트 구조

란제리 업계의 신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자카드 원단은 단일 연속 기장에 다양한 기능이 접목된다. 부분적으로 지지감, 수분 관리 또는 보온 기능 및 이음새 없는 편안함을 더한다





## 텍스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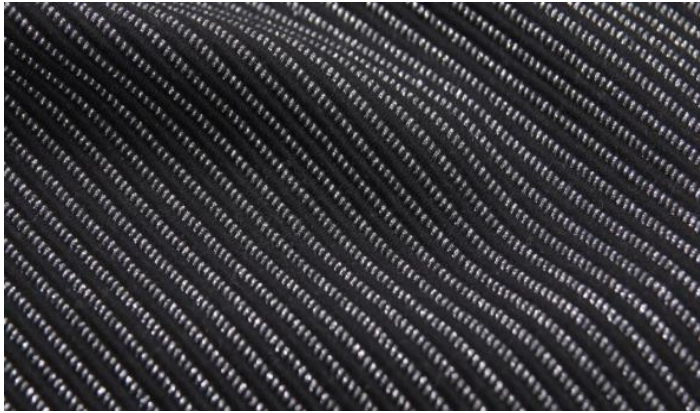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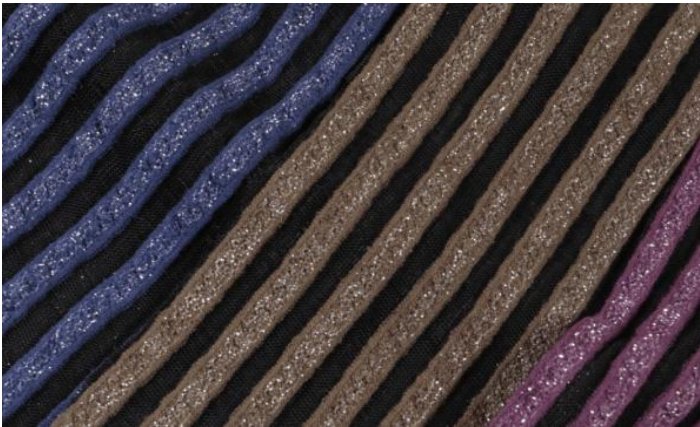
주름지고 구김간 플리츠는 캐주얼 및 포멀 소재의 마감처리로 주요하게 자리한다. 플리츠와 골지는 구김가고 불규칙한 형태로 등장해 매트한 코튼 저지에 촉감을 더한다.





# 메탈릭 믹스

이번 시즌에는 메탈릭, 이리데슨트, 코팅 원사가 풍성하게 등장하면서 캐주얼 룩에 세련된 화려함을 더한다. 화려한 메탈릭 원사와 유연한 코팅 룩은 광택 골드, 실버, 퓨터 색상의 입체적인 켈트, 자카드, 골지, 스트라이프 효과로 업데이트되어 보다 세련된 느낌을 완성한다. 옹브레 워싱이 가미된 반짝이는 원사로 짜여 화려한 무광/광택 효과로 마감된다.





# 기하학적 구조

대담한 사이즈의 기하학 자카드가 은은한 레트로 버전으로 등장한다. 클래식 다이아몬드와 체크는 물결진 패턴, 불규칙한 스트라이프, 대형 디자인을 통해 변형되고 시각적 효과가 더해진다. 신축성 엘라스테인으로 이 원단 품목에 편안함과 실용성을 유지하며 남성 및 여성 간 절기 룩에서 코튼 및 합성 혼방 소재로 목격된다.





# Pattern Focus

1819 F/W

---



## 스포티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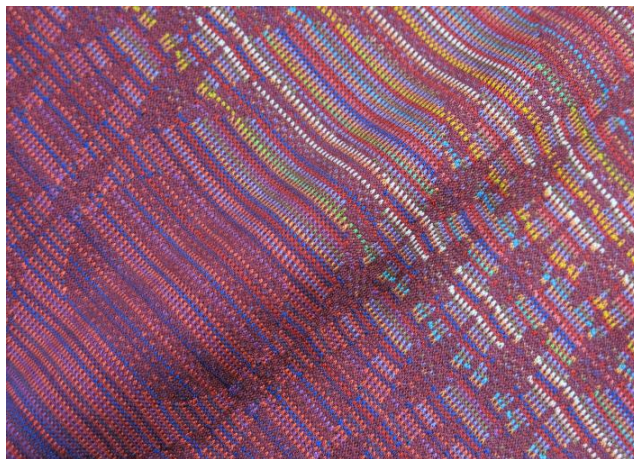
실크, 코튼, 비스코스 혼방에는 장식적인 기하학 모티브를 더하고 퍼커 및 주름진 도비, 자카드 클로케 기법으로 화려한 기하학 모티브를 완성해 시각적 흥미와 볼륨감을 더해준다. 신축성 엘라스테인으로 이 원단 품목에 편안함과 실용성을 유지한다. 그레이, 올리브, 차콜이 주를 이루는 클래식 팔레트는 남성 및 여성 간절기 룩에서 코튼 및 합성 혼방 소재로 목격된다.





## 퓨전 스트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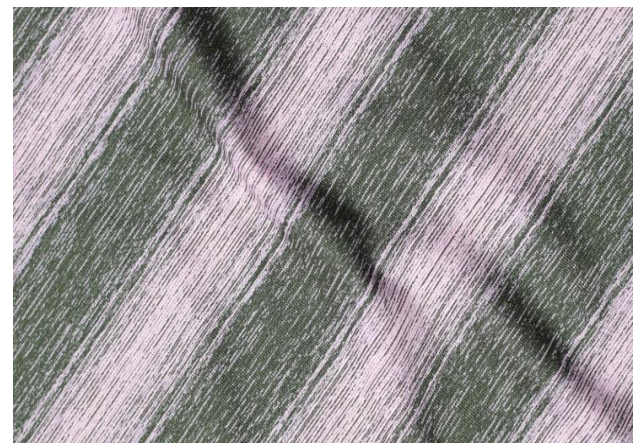
퓨전 라이프 트렌드에 발맞춰, 믹스매치 스트라이프와 기하학은 어지러운 디자인으로 뒤죽박죽 처리되고, 디자인 스튜디오들은 과거의 풍성한 패턴으로 맥시멀한 효과를 연출한다. 70년대 기하학은 활기 넘치는 미드 톤의 패치워크 스타일과 스플라이스 반복 패턴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 퓨전 스트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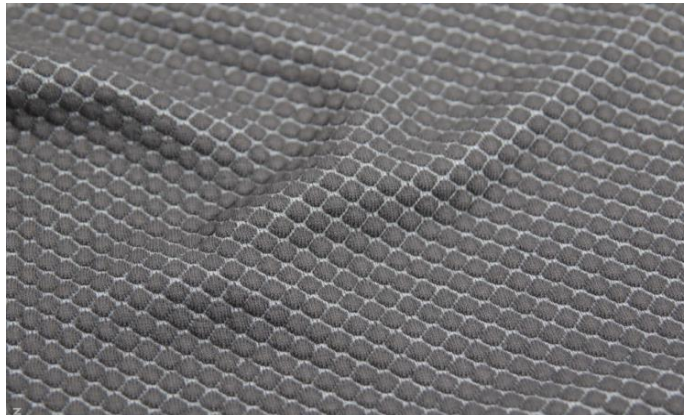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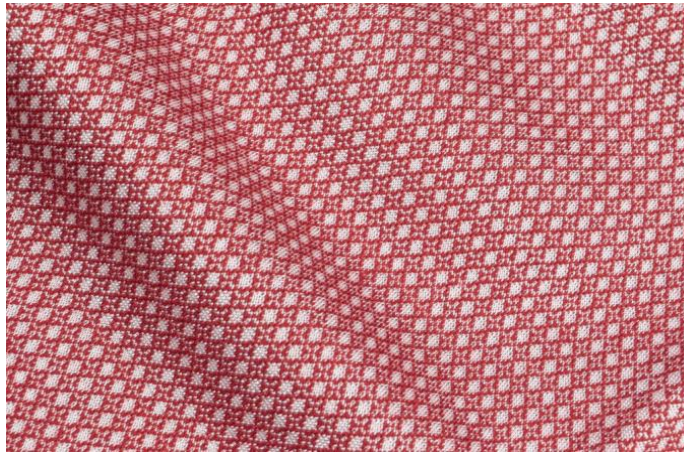
스트라이프 룩이 계속해서 대중적으로 어필하고, 티셔츠, 튜닉, 타이트 드레스 및 탑에 접목된다. 인디고, 그레이, 모노크롬, 그린, 퍼플 등의 짙은 겨울 팔레트와 말드, 스페이스 다이 효과를 사용해 부드럽고 보 다 질감이 살아 있는 룩을 더한다.





## Repeated Small Geo

클래식 그리드, 세브런, 체크 반복패턴은 머서라이즈 가공된 뽀뽀한 면의 촉감으로 간소하게 유지된다. 대형 기하학 및 아즈텍 패턴은 폴로 셔츠, 티셔츠, 브이넥 스타일에 부드럽고 매트한 코튼 마감으로 더욱 캐주얼한 룩을 선사한다.





## 레트로 클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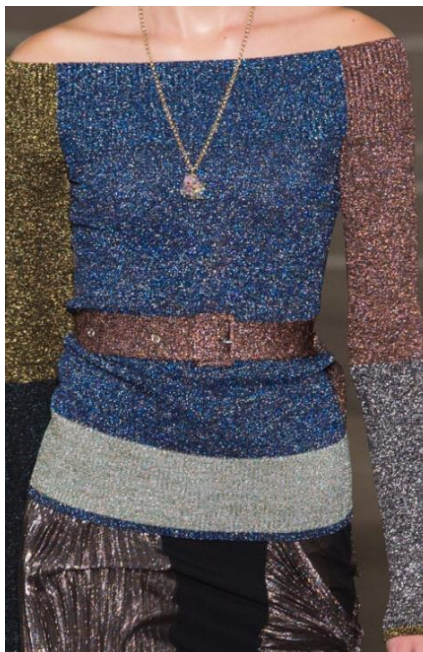
아가일 등의 레트로 그래픽 룩은 부드럽고 포근한 울과 브러시드 원사로 촉감이 더해진다. 대형 인타르시아, 패치워크, 그래픽을 클래식 폴로셔츠, 드레스, 롤넥 실루엣에 사용한다. 세트의상, 비대칭 패치워크, 크롭 크루넥에는 퓨전 감각의 젊은 분위기와 따뜻한 브라이트 색상으로 구성된 조화로운 팔레트로 앞선 감각을 연출한다.





## New 블로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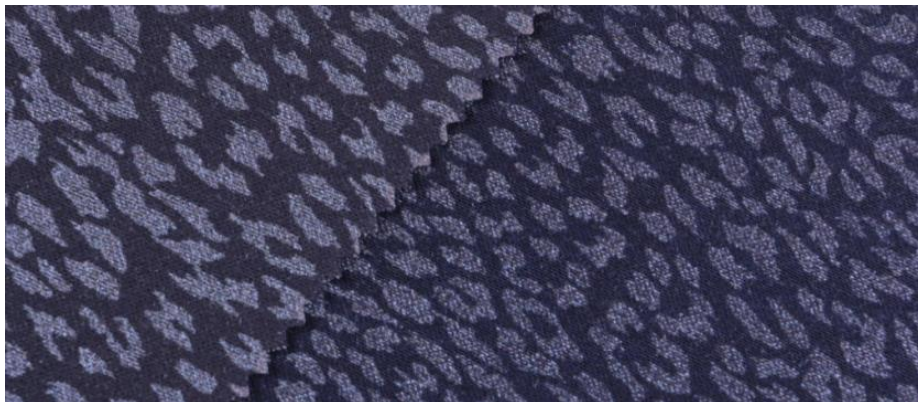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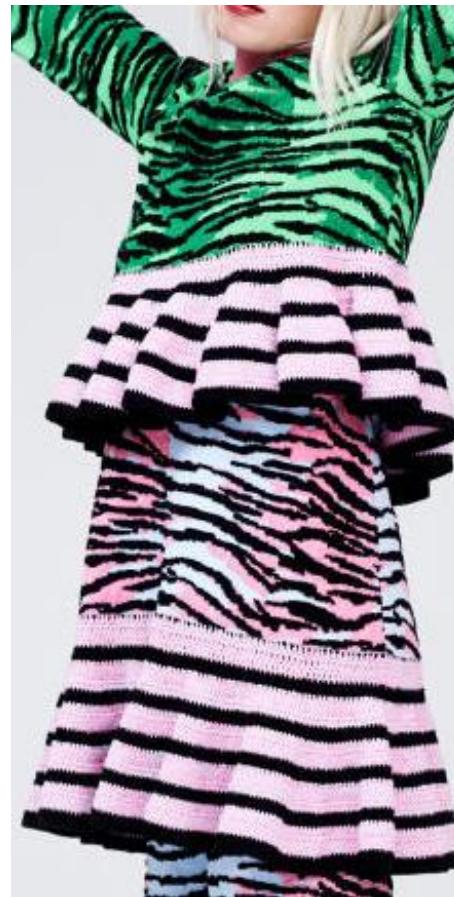
컬러블록 디자인이 컴백하고, 보다 세심한 감각으로 산뜻함을 선사한다. 복잡하고 스포티한 전면 프린트 대신 톡톡 튀는 그래픽 컬러가 디테일에 등장해, 심플 니트웨어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 강렬한 애니멀 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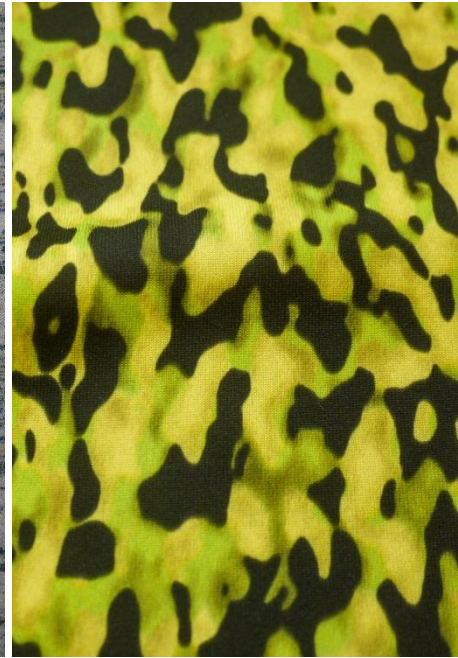
애니멀 스킨은 강렬한 색상과 추상적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80년대 테마와 잘 어우러진다. 레오파드, 제브라, 뱀피 등의 추상적인 버전 및 새로운 컬러 버전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만, 컨템포러리하게 해석하려면, 스타일라이즈드 스트라이프와 마블링 프린트로 업데이트해본다.





# 추상적 카무플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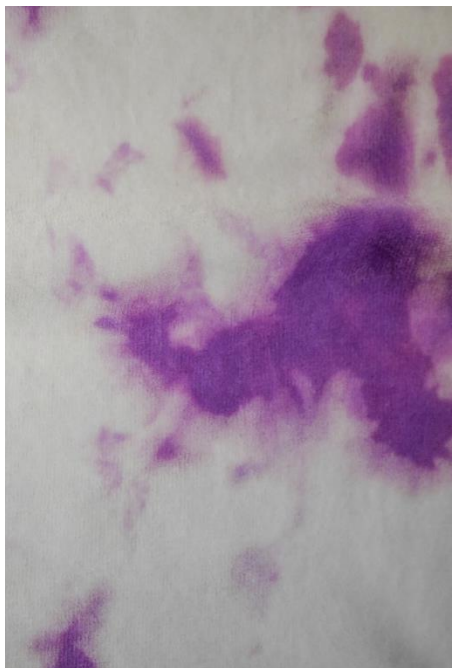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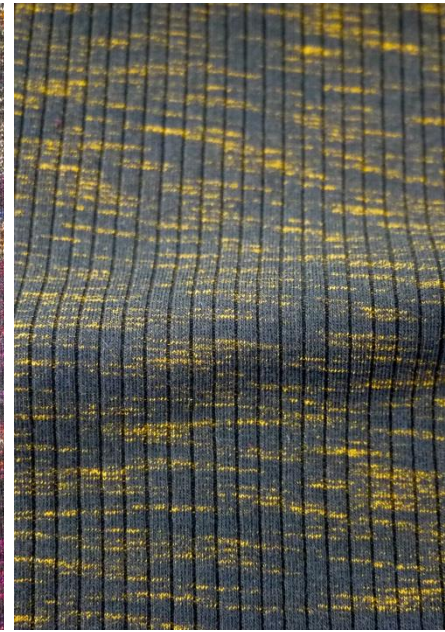
카무플라주는 세련되고 추상적인 느낌으로 등장하거나, 브라이트한 컬러로 스포티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부식된 듯한 느낌의 오버프린트를 사용해 디스트로이 효과를 내고, 부드러운 코튼/폴리에스테르 혼방은 추상적인 자카드로 사용되어 섬세한 룩을 연출한다.





## 수채화 마감

잉크 블루, 옐로우, 짙은 플럼, 핑크 톤에 회화적 효과를 더해 번진 듯한 느낌으로 완성한다. 흘치기염과 흐릿한 스트라이프 효과는 프린트, 스페이스 다이 피케 골지, 포근한 벨루어 소재에 사용하여 스포티 및 캐주얼 룩을 연출한다.





# Item Focus

1819 F/W

---



# 캐주얼 롤넥

롤넥이 저지 및 니트웨어 품목에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한다. 레트로 및 스포티 영향이 은은하게 흐르며 살짝 비치는 평직 저지와 타이트한 핏으로 럭셔리한 감각을 완성하고, 편안하면서도 차분한 뉴트럴 컬러로 깔끔한 컨템포러리 감각을 선보인다.





# 지퍼 디테일 탐

목넥과 지퍼가 더해진 스탠드 칼라 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니트 지퍼넥은 심플한 라인과 깔끔한 컬러로 실루엣을 돋보이게 한다. 대비 색상의 테이프와 컬러 블로킹은 레트로한 느낌을 더한 컨템포러리 룩으로 완성한다.





# 타이 웨이스트 스웨트셔츠

그레이 멜란지 루프백 저지로 이루어진 이  
아이템은 큼직하고 축 쳐진 실루엣으로 벌  
룬 소매와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구조감 있는 크루넥은 평소보다 높이 올라  
오고, 골지 밑단에 끈 디테일을 추가하여  
캐주얼 웨어를 완성한다.





# 폴로탑 업데이트

컨템포러리 폴로 탑은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완벽한 레이어링 아이템이다. 깔끔한 실루엣과 스포티한 골지 디테일을 더해준다. 금빛 골지 스티치가 들어간 12-14게이지 이중 니트, 넓은 플래킷, 대비 색상의 칼라 테두리가 특징이다.





# 레트로 트랙수트

다양한 레트로 및 남성복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트랙수트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자리한다. 스포츠 럭셔리 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이 F/W 시즌에 강세를 보이고, 그래픽 콤비로 구성된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훌륭한 오버사이즈 실루엣, 편안한 와이드 팬츠에 더해진다. 벨루어, 광택이 흐르는 합성 원사로 캐주얼한 레트로 느낌을 강조한다.





# 조거 팬츠

퍼포먼스 스포츠와 포멀 워크웨어를 결합한 스포츠웨어가 새로운 오피스웨어로 떠오른다. 애슬레저 스타일이 진화하면서 조거 팬츠는 고급 원단과 테일러드 실루엣으로 업데이트 된다.





## 애슬레저 퀵로트

퀵로트 팬츠가 편안한 핏 덕분에 시즌의 머스트해브 팬츠로 떠오른다. 과장된 비율이 특징이며, 힙을 따라 들어간 넉넉한 볼륨감과 함께 밑단을 향해 일자형으로 넓게 퍼진다. 기장은 더욱 옛지한 스타일에 맞춰 큼직한 비율로 구성된다. 포근한 브러시드 저지 소재를 사용하여 소비층에게 아늑하고 구조감 있는 실루엣을 선사한다. 한편, 천연 기능성 소재인 메리노, 캐시미어, 실크와 같이 매우 부드러운 고급 니트를 사용해 웰빙 느낌이 나는 드레이프를 연출한다.





# 웨어러블 미디 스커트

계속해서 미디 실루엣이 강세를 보이며 스커트는 허리선에서 떨어지고, 밑단으로 갈수록 풍성해진다. 언밸런스 기장이나 랩, 벨트 디테일을 더해 오피스웨어 겸 슬라운지 스커트로 착용 가능한 핵심 베이직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울 혼방 저지 소재를 활용하여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 슬라운지 드레스

스웨트 드레스는 고급 원단과 세련된 핏으로 럭셔리하게 업데이트된다. 울 혼방 소재는 섬유의 체온 조절과 탈취 효과를 주는 천연 기능을 자랑하며 신축성 컷앤소 저지 또는 이음새 없는 니트로 편안한 핏을 완성한다.





# 힐링한 튜닉

힐링한 튜닉과 편안한 스목 형태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앞선 느낌을 제공하며 비대칭적인 개더, 러플 디테일로 업데이트 된다. 편안하게 걸친 드레스는 사계절 옵션으로 적합하고 그레이, 블랙은 베이직한 느낌으로, 대담한 브라이트 컬러는 보다 캐주얼한 느낌을 선사한다.





# 여행자 가운

슬라운지웨어의 완벽한 본보기로 클래식 가운이 침실을 넘어서 간편하게 착용 가능한 멀티 아이템으로 발전한다. 기모노 스타일로 소매는 넓고 크롭된 형태로 구성된다. 큼직한 후드로 여행 또는 휴식 중 얼굴을 가려주고, 향균성 메탈릭 안감은 와이파이 등 위험한 전자파를 막아준다.





# 월빙 탱크 탑

운동후 회복을 돕는 레깅스는 몸의 주요 근육과 관절을 감싸는 인체공학적 패널로 구성되어,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최소화해 준다. 메리노 혼방에 메탈릭 요소가 추가되어 수면과 휴식에 적합한 부드럽고 가벼운 레깅스를 완성한다.





# Comfort 레깅스

레깅스는 몸의 주요 근육과 관절을 감싸는 인체공학적 패널로 구성되어,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최소화해 준다. 메리노 혼방에 메탈릭 요소가 추가되어 수면과 휴식에 적합한 부드럽고 가벼운 레깅스를 완성한다.

